

비건 대표, 오산서 美 군용기로 방북

김혁철 대사와 실무협상 진행 ‘평양 담판’

이달말 베트남 2차 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을 위해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 북한과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길에 올랐다.

지난 3일 한국을 찾은 비건 특별대표는 사흘 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6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출발했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북이 극비리에 진행되면서 정확한 이동 경로 등이 공개되지 않았

지만 오전 9시를 조금 넘어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군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기지에서 평양까지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 경우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비행 경로라면 비건 특별대표가 탑승한 군용기는 오전 11시 이전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비건 특별대표는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조율한다.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실질적 협상이 될 것이라 관측이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을 공식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이룬 합의, 즉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 구축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북미가 이날 김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와 스웨덴에서의 남북미 3자간 협상을 통해 2차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접점을 찾는 과정을 거친 상황이며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보다 핵심 의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이 어떠한 당근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조율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영변 핵 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왔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은 여전히 부동적이어서 양측간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압박 지속”

정치권 향해 미국 미래 위한 초당적 협력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직 할 일이 많지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김 위원장과 나는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압박(historical push)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의 포로(유해)들은 송환되고 있고 핵심협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의 주둔 미군과 국방력 증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7천

억 달러와 올해 7천160억 달러를 들여 미군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는 군비 증강의 일환으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함을 선택하기(Choosing Greatness)’라는 제목의 이번 연설에서 정치권을 향해 미국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세기에 미국은 자유를 구하고 과학을 변화시키고 중산층의 삶의 기준을 재정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대담하고 용감하게 위대한 모험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 하나는 수 십년 동안의 재앙과도 같은 무역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日, 아이치현에서도 돼지콜레라 감염 확인

일본에서 돼지콜레라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NHK가 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역 당국은 지난 4일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의심 증세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감염을 확인했다. 이 양돈회사가 같은 현의 다하라(田原)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에서도 돼지콜레라 감염이 확인돼 방역 당국은 두 곳에서 사육 중인 돼지 8천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작년 9월 기후(岐阜)현의 양돈장에서 처음으로 돼지콜레라 감염이 확인된 이후 아이치현의 양돈장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치현에서는 작년 12월 야생멧돼지의 돼지콜레라 감염만 확인됐었다.

돼지콜레라는 사람에게 옮기지 않지만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슈퍼볼, 시청자 무관심 ↑ ...1억명도 채 안 봤다 미국 슈퍼볼 중계방송이 지루하다는 혹평과 함께 10년 만에 자체 최저시청률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제53회 슈퍼볼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와 로스앤젤레스 램스 경기를 9천820만명이 봤다고 5일(현지 시간) 밝혔다. 한편,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는 로스앤젤레스 램스를 13-3으로 꺾고 우승했다. 뉴스

런던·베를린·파리도 미세먼지 골치

도시마다 특색있는 저감 정책 제시 눈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도시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각 도시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

6일 서울연구원 통신팀들이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영국 런던시장 사디크 칸은 올해 초 성명에서 2050년까지 런던의 50%를 녹지로 덮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런던은 시민과 지역사회

에 무상으로 나무를 나눠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런던은 신청자 중 1만2천명을 추첨해 이들에게 개인주택 정원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2그루씩 무상으로 나눠준다. 수종은 단풍나무와 자작나무다. 런던시는 제공받은 2그루 중 1그루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런던은 지역사회에도 50그루씩 모두 2만5천그루를 무상으로 나눠줄 계획이다.

이 밖에 런던은 혼잡한 도심지인 쇼핑영 소 옥스퍼드 거리를 2020년까지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런던은 이곳을 새로운 상징물이자 세계적 쇼핑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로운 공공미술작품이 거리에 전시되고 축제조명도 설치될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은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해 등급표지를 발급받은 건설기계만 공공건설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건설기계용 환경표지에는 해당 기계의 배출가스 기준과 미세먼지 여과기 장착 여부 등이 표시된다. 미세먼지 여과기 장착 여부 확인, 배출가스 환경기준 만족평가 등을 거친 뒤에 표지가 발급된다. 서류 제출만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해당 건설기계를 발급사무소로 가져가거나, 담당자가 건설현장에 출장을 나와 확인해야 한다.

4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 표지가 붙은 건설기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에 투입 금지된다. 다만 민간이 발주한 현장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파리는 2020년까지 파리지역에서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파리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78%는 이미 천연가스로 바뀌었다. 파리는 2025년까지 파리지역의 모든 버스를 전기차나 천연가스차로 바꾸는 ‘2025 버스플랜’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소개했다. 뉴스

우루과이, 치료목적 마리화나 수출 앞장

재배부터 수출까지 정부 관장 새로운 투자 이뤄져

2013년 12월 세계 최초로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를 합법화했던 우루과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리화나 재배와 치료목적 수출에 앞장 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 재배에서부터 판매, 시장과 수출을 정부가 관장하면서 새로운 투자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고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130km 떨어진 곳에 대규모 농원을 조성한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산업 전문업체 포트메르SA사가 5일 밝혔다.

이 곳에서 마리화나 경작에 종사하고 있는 엔리케 모랄레스는 전에는 낙농회사의 운전사로 일하다가 마리화나 기름 몇 방울로 모건의 관철염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이곳 마리화나 재배 농장으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뉴스

“전에는 사람들이 피우고 기분이 좋아지는 마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내 생각이 달라졌다. 이것은 대단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작물이다”고 그는 말했다.

포트메르SA회사는 우루과이 최대의 마리화나 생산판매회사로 아직 수출회사가 없는 우루과이에서 선두 수출기업으로 이를 준비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들은 원래 개인의 오락 목적 마리화나의 재배와 사용과 약국을 통한 정부 허용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는 합법이었지만, 나중에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뉴스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100
- B형 : 83×50 - C형 : 126×50

UO work **중개없이 성과가 되는 권** 보증금 0 / 관리비 0

유요워크 금남점 최대규모 • • • 24시간 운영!!

소호사무실 입주사 모집

특장점

- 보증금,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없음
- 최고급 인테리어, 사무집기 무료제공
- 무인 우편, 택배 보관 가능 • OA기기, 회의실 이용 무료
- 사업관련 제휴업체 연계(세무, 법률 등)
- 카세어링 서비스 •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 사무장 • 주차장 • 산소발생기

UO work 금남점 Tel. 1800-5711

광주 동구 금남로 193-22 (금남로4가역 4번출구 2번거리)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캠핑카 주문제작·판매

푸드트럭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화물 승용·합합

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한국어든 **062)522-2424** **영어**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이사장님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심파손시 재청구권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가구·싱크대·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문의 080-925-1234, ☎ 572-8900**

윤슬의 아침_나주

명품 전원주택단지 분양

총 33 필지 기반 조성중! **061.334.3040**

(주)디디하우징 최고의 조망, 숲세권!! 동신대 한의학관 바로 옆